『中國學』第84輯 (2023.09.30.)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4.84.6
pp.113-127. ISSN : 1229-9618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 중국어 수업 설계에 관한 연구

김기범*

【목 차】

1. 서론
2. 핵심역량을 적용한 초급중국어 수업 설계
3. 수업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
4. 문화 관련 설문조사 분석
5. 결론

【초록】

최근 대학교육에서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K대 교양중국어수업에서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영역, 문제해결 영역, 공감 영역이다. 수업 설계에서 의사소통은 언어표현, 문제해결 능력은 중국 여행 지식, 공감 영역은 중국문화 지식과 연계시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 학습자들은 언어표현은 가급적 적게 배우길 희망하였다. 공감 영역의 중국문화 부분에서 중국문화 영역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만, 외국인으로서 중국에 갔을 때 주의해야 할 예절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본 수업을 통해서 의사소통 영역에서 55%, 문제해결 영역에서 54%, 공감 영역에서 65%의 학습자들이 해당 영역의 핵심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의사소통, 문제해결 영역보다 공감 영역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언어표현, 중국 여행보다는 중국문화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핵심역량, 초급중국어, 수업 설계, 수업 만족도, 문화

* 김기범.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shaolin4@kwu.ac.kr)

1. 서론

일부 교양 중국어 수업을 살펴보면, 전공학습자 위주로 편성된 교재를 쓰면서, 교과서 진도대로 문장과 어휘를 많이 배우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문화 부분 내용을 보면, 당장 접하기 힘든 문화 요소들(예를 들면, 중국의 명절 풍습 등) 위주로 짜여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전공학습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써, 언어표현보다는 해당 국가의 문화에 좀 더 흥미를 가지는 교양 중국어 학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언어표현만 잘한다고 해서 중국인과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어 속에 내재된 사회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함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 교제 능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

특히 요즘 대학교육에서는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설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의 관성적인 주입식 교수법에서 벗어나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양수업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업 설계모델이 필요하므로 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핵심역량을 적용한 초급중국어 수업 설계

2015년부터 실시된 학부 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서는 교양 교육과정 발전을 위해서 교양 교육과정 전담 기구의 신설 및 확충, 인성교육 중심 교양 교육과정 강화, 기초학문 및 역량 중심 교양 교육과정 강화, 창의 및 융복합 교양 교육과정 운영, 핵심역량 중심 교양 교육과정 확대, 교양 교육과정 개편 및 교과목 확대, 체험기반(산학연계 등) 교양 교육과정 운영, 교양 교육과정 질 관리 강화, 글로벌 교양 교육과정 운영 등이 강조되고 평가되었다.[2)]

핵심역량이 교양교육에 있어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대학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3)]

K대 역시 정부 시책에 맞추어 각 교양과목마다 습득해야 할 핵심역량을 배치하고,

---

1) 김은희, 「중국어 교제 능력 향상을 위한 고찰」, 『중국인문과학』, 제40집, 중국인문학회, 2008, p. 120.

2) 권충훈, 「학부 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선정 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운영성과와 발전계획 내용 탐색」, 『인문사회 21』, 제8권 제5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p.87.

3) 김양희,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선: 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2권 제2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p.2457.

교수자가 이에 맞추어 수업 편성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자는 이전의 교수법을 수정하여 핵심역량을 고려한 수업 편성을 진행하여야 한다. K대학 교양과목 초급중국어(사이버)에 배치된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표1> K대 교양 초급중국어 핵심역량 비율

핵심역량									
전문			창의			나눔			계
30			30			40			100
전문			창의			나눔			계 (%)
의사소통	전문지식	자원정보 활용	자기주도	종합적 사고	문제해결	공감	협동	공동체	
30	0	0	0	0	30	40	0	0	100

핵심역량은 전문(30%), 창의(30%), 나눔(40%)이고, 하위 역량으로는 전문영역에서 의사소통(30%), 창의 영역에서 문제해결(30%), 나눔 영역에서 공감(40%)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교양 초급중국어 수업을 듣고 나면 의사소통, 문제해결, 공감 역량이 잘 발휘되도록 수업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핵심역량과 과목의 연계성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초급중국어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 영역(30%)은 언어표현과 연결시켰다.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해당 국가를 이해하고 해당 국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언어표현의 습득이 필요하다.

초급중국어 핵심역량 중 문제해결 영역(30%)은 여행과 연결시켰다. 중국에 가서 중국인과 소통하거나 여행을 할 때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는데,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초급중국어 핵심역량 중 공감 영역(40%)은 문화 지식과 연결시켰다. 외국인의 문화를 잘 모를 때는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기 쉽고,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그 나라 사람의 시각에서 사고와 문화를 배우고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이해하면,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감 능력이 증대될 수 있다.

어학강좌에서의 문화정보 소개는 시간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학강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교수하고 있는 어학 지식과 관련 있는 필수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4]. 이와 같은 이유로 문화정보 중에서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여행 관련 문화 요소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다.

4) 한희창·이소현, 「중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수목록 구축」, 『中國學』, 제68집, 대한중국학회, 2019, p.210.

1) 의사소통 영역

중국어 표현을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교재를 보면, 교양 중국어 교재라고 하더라도 전공자를 위한 중국어 교재를 쓰거나 이를 바탕으로 편집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대학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그 때문에 교재에 의지하지 않고 PPT를 이용해 본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단어는 10개 내외, 문법 사항은 2개 내외의 본문 구성을 채택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때도 교양 중국어를 듣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병음 위주로 연습하도록 하였다. 한자의 경우, 학생들이 중국 여행을 갈 때 주로 많이 보는 간판이나 음식 이름 등의 필요한 한자를 위주로 해당 주의 주제와 연계하여 5개 전후로 제시하였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중국어 문장을 원활하게 구사하여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짧은 문장을 구사하더라도 자신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는 방식을 익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2) 문제해결 영역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흔히 외국에 갔을 때 부딪힐 수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 들을 알려주고 조별 모임에서 토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의 액션러닝 교수법을 도입하였다. 외국 여행에서는 단순히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이외에도 언어습관, 시스템 등이 달라서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택시를 타고 '○○대학 갑시다'라고 말해도 정문에 내려주지만, 중국에서는 '남경대학 가주세요'라고 말하면 '남경대학의 어느 문에 내려줄까요?'라고 되묻는데, 이렇게 중국대학의 문이 여러 개라는 것을 모르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시스템이 다른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고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도록 수업 내용을 설계하였다.

3) 공감 역량 영역

상대방이 어떠한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 경험이 없다면 공감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상대의 성격, 배경 등을 충분히 알고 있을 때, 편견이나 오해 없이 상대방의 얘기를 수용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이웃 나라고,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어 왔으며, 유교문화, 한자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보면 두 나라

사람이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는 사회주의 국가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한국은 유교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부분 예전의 유교문화는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매체의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서 오해와 편견이 늘어가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그것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핵심역량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문화 관련 콘텐츠 설계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표2> 주차별 문화 컨텐츠 설계 내용

주차	문화 컨텐츠 설계 내용
1주차	강소요리 / 중국자짱면
2주차	운남 쌀국수/ 중국 우유 생산 날짜
3주차	전통의상 치파오/ 세뱃돈 붉은 봉투
4주차	중국차/ 중국 길거리 음식 쏘우주와삥
5주차	양꼬치/ 만두
6주차	소룡포/ 교자만두&딤섬
7주차	우육면/ 마라탕
9주차	길거리 음료/ 중국의 열대과일
10주차	대중교통/ 호텔 이용방법
11주차	화폐 단위/ 할인제도
12주차	버스 이용 방법/ 구글맵 VPN
13주차	동북요리/ 산동요리/ 사천요리
14주차	강소요리/ 호남요리/ 광동요리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심리학과 이○정

감사하게도 강의에 나오는 중국어들도 간단하며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것들이라 더욱 만족스럽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실내디자인학과 김○라

사실 중국어는 고등학교 때 선택과목으로 배워본 적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몇 번 영화를 보거나, 흥미가 별로 없던 예체능 과목 중 하나였는데 이해하기 쉽게 문화와 음식 그리고 중국어의 어려운 성조들도 재미있게 수업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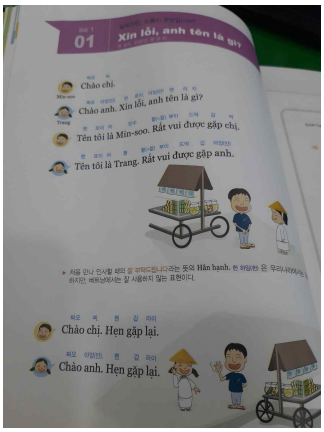
항공서비스학부 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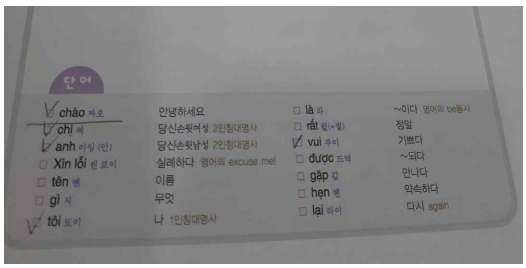
단순히 중국어를 발음하는 법, 한어 병음, 한자 등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들도 함께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고, 교수님께서 발음해 주시는 것을 따라 해보며 소리 내어 학습하였더니 중국어를 발음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중국어 단어를 익히는데 부담감이 많이 감소하고, 언어표현 외에도 유용한 문화 부분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교양 초급중국어에서 단어와 문장을 얼마만큼 가르쳐야 하는지는 교수자의 판단에 달려있는데, 많은 교수자가 교재의 진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학습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성조언어인 베트남어 초급 1과의 본문과 단어를 살펴보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어는 표준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7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어보다도 숫자가 많다.

<그림1> 베트남어 첫걸음 1과 문장과 단어





제1과에 새단어가 14개나 나오고 있는데, 교양 외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는 위와 같은 숫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3. 수업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

수업이 교수자의 의도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황분석이 중요하다. 이 상황분석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 '학급의 특성', '교사의 특성', '강좌내용 관리', '평정과 평가의 요건' 등이 모두 포함된다.[5] 상황분석을 위해서 각 영역별로

설계된 사항들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여기는지 수강생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제시된 단어와 문장 학습량이 적정한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대상 99명 중에서 75명이 설문에 응하였다(75%).

<표3> 중국어 수학 경험 여부

중국어 배운 경험이 있다.	42명	56%
중국어 배운 경험이 없다.	33명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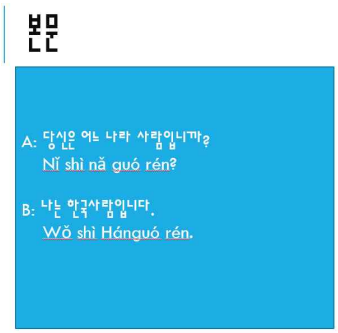
설문에 응한 대상 75명 중 42명이 '있다'를 선택하였다(56%). 편의상 A그룹이라고 칭한다.

<표4> 수학 경험자의 중국어 문장 난이도

① 아주 어렵다	0명	0%
② 어렵다	7명	16.6%
③ 적당하다	26명	61.9%
④ 쉽다	6명	14.2%
⑤ 아주 쉽다	3명	7.1%

일반적으로 중국어를 이전에 배웠던 학생들은 학생마다 배운 기간의 편차를 있겠지만, '② 어렵다'를 선택한 학생이 16%나 된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시기 전후 7주차 강의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2> 7주차 강의 본문



5) 신경미, 「교양중국어 수업 사례분석 및 교육 방안」, 『중국인문과학』, 제68집, 중국인문학회, 2018, p.126.

문법 사항이 2개 내외인 본문으로 구성되었다. 7주차 1강의 문법 포인트로는 의문대명사 '哪', 판단동사 '是'가 쓰인 것과 같은 단순한 난이도인데도 어렵다는 학생이 16%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수학 경험자의 중국어 배우는 양

① 아주 많다	0명	0%
② 많다	3명	7%
③ 적당하다	37명	88%
④ 적다	2명	4.7%
⑤ 아주 적다	0명	0%

본문 단어는 10개 내외로 제시되어 있는데, 대다수 학생(88%)들이 현재 배우는 중국어 양이 적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다음 학습자들이 현재 수업을 받으면서 어려운 점을 주관식으로 쓰게 하였다. 주관식 문항을 분석하여 수치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42명 중 28명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고 답하였다. 9명은 한어 병음, 성조 등의 발음이 어렵다고 답하였고, 5명은 한자가 어렵다고 하였다.

> 마○은 항공서비스학과
>
> 영어같이 영어와 뜻만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는 성조, 한어 병음, 한자 세 가지를 학습해야 한다는 점이 공부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학생의 답변은 시사점이 있다. 즉, 일부 학습자에게는 예를 들어 '好'는 이 자체로 하나의 학습대상물이 아니라, '3성(성조), hao(한어 병음), 好(한자)' 이렇게 세 가지 학습대상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단어를 10개 배우게 되면 이 학습자는 30가지를 공부해야 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 다음, 학습자들이 현재 수업을 받으면서 어려운 점을 주관식으로 쓰게 하였다. 주관식 문항을 분석하여 수치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42명 중 29명은 바라는 것이 없거나 지금 상태가 좋다고 언급하였다. 11명은 중국문화를, 9명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을 좀 더 배워보고 싶다고 하였고, 5명은 여행 관련 내용을, 3명은 중국에서 유행하는 단어를, 1명은 역사를 알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이전에 중국어를 배운 경험이 없다고 답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B그룹이라고 칭한다. 설문에 응한 대상 75명 중 33명이 '없다'를 선택

하였다(44%).

<표6> 처음 배우는 학습자의 중국어 난이도

① 아주 어렵다	1명	3%
② 어렵다	2명	6%
③ 적당하다	29명	87%
④ 쉽다	1명	3%
⑤ 아주 쉽다	0명	0%

대부분 학습자들이 3번을 선택했다는 것은 현재의 난이도에서 더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7> 처음 배우는 학습자의 중국어 양

① 아주 많다	1명	3%
② 많다	3명	9%
③ 적당하다	28명	84%
④ 적다	1명	3%
⑤ 아주 적다	0명	0%

위와 결과의 비슷하게 대부분 학습자들이 3번을 선택했다는 것은 현재의 중국어 양에서 더 많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 학습자들이 현재 수업을 받으면서 어려운 점을 주관식으로 쓰게 하였다. 주관식 문항을 분석하여 수치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33명 중 16명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고 답하였다. 10명은 한어 병음, 성조 등의 발음이 어렵다고 답하였고, 6명은 한자를, 1명의 경우 단어의 양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송○진 화장품과학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라 내 발음이 맞는 것인가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낀다.

본 수업이 사이버강의이다 보니, 학습자들은 대면 수업 학습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더하여 확인이나 교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애로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학습자들이 현재 수업을 받으면서 어려운 점을 주관식으로 쓰게 하였다. 주관식 문항을 분석하여 수치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33명 중 12명은 바라는

것이 없거나 지금 상태가 좋다고 언급하였다. 10명은 중국문화를, 3명은 한자를 더 배워보고 싶다고 하였다. 3명은 여행 관련 내용을, 2명은 일상생활을, 1명은 역사를, 1명은 중국에서 유행하는 단어를, 1명은 문장 만들기를 더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A그룹에서 11명은 중국문화를, 9명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을 좀 더 배워보고 싶다고 응답한 것에 비교해 보면, B그룹에서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문장보다는 문화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난이도와 학습량에서는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사이버 수업이고 교양수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학습자들에게 최대한 난이도를 낮추고 학습량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학습자들이 최대로 어려워 하는 점은 발음[6], 성조, 한자 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학생들이 바라는 점을 살펴보면, 중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 쓰이는 단어나 문장 그리고 문화를 더 배워보고 싶어 하는 반면, 중국어를 배워 본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은 문화 부분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4. 문화 관련 설문조사 분석

문화 영역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여기는지 수강생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다. 대상 99명 중에서 78명이 설문에 응하였다(78.7%).

<표8>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① 아주 적다	2명	2.5%
② 적다	3명	3.8%
③ 적당하다	46명	58.9%
④ 많다	20명	25.6%
⑤ 아주 많다	7명	8.9%

설문에 응한 대상 78명 중 73명(93.5%)이 중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6) 학습자들이 한어병음(성조를 표기한)을 어느 정도 마스터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은 교양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그저 평생 동안 한 학기만 배우는 경우도 있고, 일부 학생들은 본인이 용이하도록 한글로 발음기호를 적는 경우도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중국문화 요소 중에서 알고 싶은 항목을 주관식으로 적게 하였는데 총 78명이 응답하였다.

<표9> 알고 싶은 중국문화

음식문화	14명	17%
무응답	9명	11%
일상 생활문화	8명	10%
중국 예절[7]	7명	8.9%
중국 언어	5명	6%
전통문화	5명	6%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음식문화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타로는 역사(3), 차 문화(3), 유행문화(3), 중국 젊은 세대 문화(3), 회사문화(3), 교육문화(3) 등에 관심을 보였다.

그 다음, 중국 드라마나 영화, Youtube, SNS 등을 통해 본 중국 관련 컨텐츠 중에 제일 흥미 있거나 인상 깊었던 컨텐츠가 무엇인지 적도록 하였다. 흥미 있다고 답한 학습자는 49명(62.8%)이었다. 컨텐츠를 살펴보면 치아문단순적소미호(致我们单纯的小美好, 15명), 상견니(想見你, 3명), 나의 소녀시대(我的少女时代, 3명) 등의 순위를 보인다.

다음으로 배운 문화 요소 중에서 가장 흥미 있는 요소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총 78명이 응답하였다.

> 강소요리□ / 중국짜장면□/ 운남 쌀국수□/ 중국 우유 생산 날짜□/ 전통의상 치파오□/ 세뱃돈 붉은 봉투□/ 중국차□/ 중국 길거리 음식 쏘우주와삥□/ 양꼬치□/ 만두□/ 소룡포□/ 교자만두&딤섬□/ 우육면□/ 마라탕□/ 길거리 음료□/ 중국의 열대과일□/ 대중교통□/ 호텔 이용방법□

마라탕(14, 17.9%), 중국짜장면(12, 15%), 우유 생산날짜(9, 11.5%), 호텔 이용 방법(8, 10%), 대중교통(8, 10%) 등의 순위를 보였다. 마라탕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는 평소 매운 마라탕을 즐겨 먹는데, 중국 마라탕과 비교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중국 짜장면 한국 짜장면과 다른 맛이며, 산동지역 외에서 접하기 어렵다는 것에 흥미를 보

7) 중국 예절에서 특이한 점은 중국인 상호 간의 예절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중국에 갔을 때 주의해야 할 예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였다. 그리고 중국 우유가 한국과 달리 생산날짜를 표기해 흔히 오해하기 쉽다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나타내는 학습자가 많았다. 호텔과 대중교통은 중국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배운 문화 요소 외에 일반적인 중국어 교재에 나오는 문화 요소를 제시하고 선호도를 물었으며, 총 78명이 응답하였다.

> 중국 국가 소개 □/ 중국어 방언 □/ 중국의 다양한 인사말 □/ 중국의 성씨 □/ 지역별 중국인의 특성□/ 중국 인구 조절 정책□/ 중국의 숫자와 관련된 문화□/ 중국의 명절□/ 중국의 화폐□/ 중국 지역별 음식 특성□/ 중국의 인터넷 문화□/ 중국의 교통수단□/ 중국의 지형에 따른 기후□/ 중국 역사와 관련된 명승고적 만리장성, 진시황릉□

중국의 다양한 인사말(14, 17.9%), 중국 지역별 음식 특성(10, 12.8%), 지역별 중국인의 특성(9, 11.5%), 중국어 방언(5, 6%), 중국의 숫자와 관련된 문화(5, 6%) 중국의 교통수단(5, 6%) 등의 순위를 보였다.

중국의 다양한 인사말은 학습자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인과 적절한 인사말을 통해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이유가 주류를 이루었다. 지역별로 다양한 음식문화와 해당 지방의 중국인들의 기질에 궁금증을 드러내었다. 한 손으로 숫자를 10까지 셀 수 있고, 숫자에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는 숫자 문화도 한국 숫자 문화와 비교하며 관심을 나타내었다. 교통수단 등은 중국 여행시 꼭 필요한 정보이기에 선호도가 비교적 높았다.

5. 결론

지금까지 핵심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교양 중국어 수업 설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교과목은 사이버 교과목이므로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수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대면 수업보다 난이도와 학습량을 낮추었다. 우선 핵심역량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표현을 배우되 단순히 표현만 많이 배우는 것 보다는 언어표현 이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요소들을 많이 안배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행 중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수업 구성의 주요 내용은 여행과 관련된 요소들을 내세웠다. 핵심역량 중 공감 영역 향상을 위해서 한국문화와 많이 다른 중국문화를 소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위와 같은 설계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현재의 난이도와 학습량을 더 줄일 것을 원하고 있었다. 아울러 어려운 점으로는 발음과 성조, 한자 등을 언급했으며, 향후 더 배우고자 하는 내용에는 중국문화였다.

이에 문화 관련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음식문화 외에도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했으며, 아울러 외국인이 중국에 갔을 때 필요한 예절에 관심을 갖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관련 영상 컨텐츠에서는 '치아문단순적소미호(致我们单纯的小美好)'와 같이 가볍고 보기 편한 로맨스물을 선호하였다. 수업 시간에 배운 문화 요소 중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는 '마라탕', '중국 짜장면' 등이었다. 일반적인 중국어 교재 상에 소개되는 문화 요소의 선호도에서는 '중국의 다양한 인사말', '중국 지역별 음식 특성', '지역별 중국인의 특성' 등이 부각되었는데, 중국인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적절한 인사말을 배우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각 지방에 방문했을 때 해당 지역의 분위기와 음식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것에서 북경, 상해 등 잘 알려진 대도시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호기심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학기 수업이 끝나고 본인이 핵심역량이 얼마나 증대되었는지 각 영역별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대상 99명 중에서 90명이 설문에 응하였다(90%).

<표10> 의사소통 영역의 향상도

① 아주 적다	0명	0%
② 적다	2명	2%
③ 적당하다	39명	43%
④ 많다	34명	38%
⑤ 아주 많다	15명	17%

<표11> 문제해결 영역의 향상도

① 아주 적다	0명	0%
② 적다	2명	2%
③ 적당하다	41명	46%
④ 많다	32명	36%
⑤ 아주 많다	16명	18%

<표12> 공감 영역의 향상도

① 아주 적다	0명	0%
② 적다	0명	0%
③ 적당하다	33명	37%
④ 많다	35명	39%
⑤ 아주 많다	22명	24%

학습자들이 '④ 많다 ⑤ 아주 많다'를 선택한 비율을 보면, 의사소통 영역에서 55%, 문제해결 영역에서 54%, 공감 영역에서 65%를 선택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핵심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답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공감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향상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공감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문제해결 영역보다 공감 영역에 더 관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공감 영역의 핵심인 문화 항목을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의 언어표현, 문제해결의 중국 여행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수업모델 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박정구·백은희 공저,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1』, 다락원. 2011.

잉위엔 티 투 앙 지음, 『베트남어 첫걸음 (발음+회화+문법+문화)』, 디지스, 2023.

권충훈,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선정 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운영성과와 발전계획 내용 탐색」, 『인문사회 21』, 제8권 제5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김양희,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선: 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2권 제2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김은희, 「중국어 교제능력 향상을 위한 고찰」, 『중국인문과학』, 제40집, 중국인문학회, 2008.

신경미, 「교양중국어 수업 사례분석 및 교육 방안」, 『중국인문과학』, 제68집, 중국인문학회, 2018.

한희창·이소현, 「중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수목록 구축」, 『中國學』, 제68집, 대한중국학회, 2019.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核心力量, 初级汉语, 授课设计, 授课满意度, 文化
	영문	Core competency, Beginner Chinese, Class design, Class satisfaction, Culture

A Study on the Design of Liberal Arts Chinese Classes to Strengthen Core Competencies

Kim Ki-Bum

Recently, university education has emphasized instructional design to improve core competencies. In K University's liberal arts Chinese class, the core competencies are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and empathy. In class design, communication was linked to language expression. Problem-solving skills was linked to knowledge of traveling to China. The area of empathy was linked to Chinese cultural knowledge.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is. As a result of the survey, learners hoped to learn as little language expression as possible. In the area of Chinese culture in the area of empathy, there was a lot of interest in the area of Chinese culture, but as a foreigner, there was also a lot of interest in manners to be careful about when visiting China. Through this class, 55% of learners in the communication area, 54% in the problem-solving area, and 65% in the empathy area answered that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area have improved.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that the area of empathy has increased relatively than the areas of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which is a proof that learners are more interested in Chinese culture than language expression and travel to China.

저 자	김기범 / 金记范 / Kim Ki-Bum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8.10.	심 사 일	2023.09.03.	게재확정일	2023.09.13.